

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식 출범

전주시정연구원서 도내 지자체 최초 개소식 가져

전주시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시는 11일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에서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장,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공단 전북본부,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2022년 환경부가 실시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부문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주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전주시정연구원은 전담 인력과 관련 인프라 등 지원센터 조지를 정비

하고, 올해부터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변화 적응 등 업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 전주시의 탄소중립 시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또 이날 개소식을 기념해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전북연구원 장남성 센터장)와 공동으로 '2024년 전북권역 탄소중립 공동포럼'도 개최했다.

먼저 포럼 1부에서는 △지역주도 상향식 탄소중립 추진 방향(환경부 기후전략과) △전주시 탄소중립 중점 추진 방향(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전주시 전환 부문 중점 방향(전주시 에



전주시는 11일 전주시정연구원서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장,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공단 전북본부,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너지센터) 등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도내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이뤄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과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도내 14개 시·

군 탄소중립 담당자 및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이슈 및 대응 방안(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발제와 질의 응답, 자유 토론회가 펼쳐졌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는 11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주시역 17개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책누리 도서관 여행'을 운영한다.

특수학급 학생 위한 도서관 여행

전주시, 11월까지 총 12회 중·고등학교 153명 대상 진행

전주시는 11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주시역 17개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책누리 도서관 여행'을 운영한다.

책누리 도서관 여행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하기 힘든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들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특수학급 청소년들에게는 예술 문화 프로그램과 큐레이션, 공간 해설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추진하며, 지난달 사전 신청을 접수한 결과 만성중학교 등 12개 중학교와 전주고등학교 등 5개 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도서관 여행해설사와 함께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서화예술마을 도서관에

대한 해설과 이용 방법을 듣고 여행하며, 도예 공예와 반려 식물 만들기, DIY 북아트 등 예술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날 첫 '책누리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수학급 인솔자는 "평소 미디어를 활용해 도서관 설명 및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줬었는데, 직접 학생들과 방문해 도서관 이용에 대한 자신감도 심어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강준 도서관본부장은 "전주시 도서관에서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임산부 등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수학급 청소년들이 도서관 여행을 통해 도서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안전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전주시 덕진구, 기초생활수급·노인세대 등 950세대 대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주택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라 덕진구에 주소를 두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안전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올해 750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고, 200세대에

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날 중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지원 물품은 덕진소방서에 인계된다.

이후 소방서 직원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직접 안전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해 소방시설을 설치하

게 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 각각 600세대와 800세대 등 총 14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해 왔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쉽게 구비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가정 내에 꼭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덕진보건소, 노인복지관 대상 건강교실 운영

덕진보건소는 12일 금암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올 한해 덕진권역 노인복지관 4곳에서 이용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혈관튼튼! 근력UP!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건강교실에서는 지역 병원 의료진과 지역 대학교 간호대학 및 운동처방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1:1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자 합병증 예방관리 △노인 척추건강 △노인 특성에 맞춘 상·하체 근력강화 운동지도 등의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 교육에는 보건소 등록자 중 고위험 허약 노인으로 판정된 대상자들도 참여해 평소 잘 몰랐던 심뇌혈



관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정서적·사회적 기능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운동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삼천도시대학협의회, 홀몸어르신 생신잔치 봉사

삼천도시대학협의회(회장 허정)와 삼천2동해바라기 봉사단(회장 우수연)은 삼천마실(거마중앙로65)에서 11일 관내 어르신 50명을 초청하여 생신잔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삼천도시대학협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월 그달에 생신인 홀몸 어르신들의 생신잔치를 열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마련하여 왕래가 뜸하거나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와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달부터는 삼천2동 해바라기봉사단과 협약을 맺은 후, 두 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홀몸 어르신 50명에게 떡케이크, 과일, 모듬전, 잡채, 미역국 등 생신상차림을 대접한 후 삼천도시



대학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생신한 수제비누세트 생신선물로 전달했다.

배경남 삼천2동장은 "관내 생신을 맞으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삼천도시대학협의회와 해바라기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이웃이 살피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의 가족 같은 삼천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결산 감사 위원 7명 위촉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11일 의정실에서 최근 선임된 2023회계연도 결산 감사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 위원은 대표위원에 전주시의회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을 비롯해 윤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 양창원, 오진욱, 박원호 전 전주시 과장, 박종욱, 김동현 세무사 등이다.

이들은 11일부터 30일까지 집행부의 예산 집행 사항 전반을 감사하는 활동을 펼친다.

최주만 결산감사 대표위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위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펼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